

2022-CR-03

작은연구 좋은서울 22-10

서울시 청년장애인의 창업수요와 지원정책 개선 방안

전하영



서울시 청년장애인의 창업수요와 지원정책 개선 방안



연구책임

전하영 국제장애인노동인권연맹 팀장

연구진

조태홍 UN장애인권리협약 실천연구센터 정책실장

임상욱 에이블뉴스 저널리스트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와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연구개요	1
1_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_연구의 구성 및 방법	3
02 선행연구 검토	5
1_장애인 창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	5
2_청년장애인 창업지원정책 현황	7
03 청년장애인 창업수요와 사례조사	14
1_설문을 통한 청년장애인 창업 수요조사	14
2_FGI를 통한 청년장애인 창업 사례조사	24
04 청년장애인 창업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30
1_기존 창업지원정책의 보완	30
2_신규 청년장애인 창업지원정책 제언	32
참고문헌	34
부록	36

표 목차

[표 1-1] 연령별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2
[표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
[표 3-2] 청년장애인들의 창업에 대한 의지와 준비 현황	17
[표 3-3] 서울시 및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	20
[표 3-4] 청년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	21
[표 3-5] 서울시에 바라는 프로그램이나 정책, 기타 의견	22
[표 3-6] FGI 참여자 개요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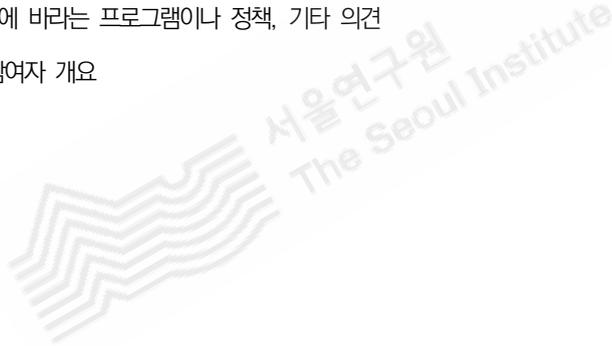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2-1] 서울 캠퍼스타운 홈페이지	8
[그림 2-2] 청년창업꿈터 홈페이지	9
[그림 2-3] 청년국 비즈니스센터 참가자모집 포스터	10
[그림 2-4] 창업보육실 모집대상 및 우대사항	12
[그림 2-5] '청년장애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정 및 행사 프로그램	13
[그림 3-1] 창업을 희망하게 된 동기	17
[그림 3-2] 창업 희망 업종	18
[그림 3-3] 업종을 선택한 이유	18
[그림 3-4] 창업 시 필요자금 마련 방안	18
[그림 3-5] 창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19
[그림 3-6] 청년장애인 관련 창업지원정책의 인지 여부	19
[그림 3-7] 청년장애인 창업지원정책 정보의 출처	20
[그림 3-8] 청년장애인 창업 준비 시 가장 중요한 요소	21
[그림 3-9] 청년장애인의 창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21
[그림 3-10] 청년장애인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	22

01. 연구개요

1_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직업이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순한 생계의 수단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며, 나아가 자아실현의 길이 되기도 한다(김태진 외, 2014). 그러나 장애인들은 경제적 생산성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대상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에 고통받고 있으며,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물리적 노동환경 및 비장애인과의 경쟁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¹⁾. 2021년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장애 인구의 34.6%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회복 둔화와 소비 및 투자 부진 등으로 내수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국면이기에 이에 따른 장애인 노동시장은 점점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은 장애인이 가지고 누려야 할 인권 중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안주협, 2002), 이러한 장애인의 경제적 권리는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다. 국제 장애인 인권조약인 UN장애인 권리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32조에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근로의 권리가 주어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이 고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노동·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의 의의”, 미디어생활, 2020.09.11.수정, 2022.10.03.접속,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42>

2) 장애인 근로자의 낮은 임금과 청년장애인의 낮은 창업률

법적인 보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2조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주기보다는 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순 ‘참여자’로서의 지위만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9.4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73.4만 원의 69.3%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을 선택해 비임금근로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동 연령대의 전체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15~29세의 경우 0.1%, 30~39세의 경우 8.1%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년층의 장애인들이 실제 창업을 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음을 보여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표 1-1] 연령별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연령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323,157	36.2	57.8	68.3	58.6	41.0	18.7
	임시근로자	205,590	23.1	37.8	17.8	15.2	12.5	30.5
	일용근로자	89,767	10.1	3.5	4.4	10.4	13.3	9.9
	소 계	618,515	69.4	99.1	90.5	84.3	66.8	59.1
비임금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9,932	4.5	0.0	1.4	2.9	8.4	3.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01,464	22.6	0.1	6.7	9.9	22.9	31.7
	무급가족종사자	31,894	3.6	0.8	1.4	3.0	1.9	5.4
	소 계	273,289	30.6	0.9	9.5	15.7	33.2	40.9
전 체 (추정 수)	891,804	100.0	100.0 (46,965)	100.0 (68,937)	100.0 (133,464)	100.0 (227,320)	100.0 (415,118)	

3) 청년장애인 창업지원 정책의 부족

현재 청년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및 정부의 창업 프로그램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022년에 최초로 시행한 청년장애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하나뿐으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정책에 비해 그 다양성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배경에 따라 청년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인 청년장애인 창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색, 나아가 구체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서울시 청년장애인의 창업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자립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청년장애인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_연구의 구성 및 방법

1) 연구내용의 구성

청년장애인들의 창업 수요를 파악하고, 창업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내용, 방법 및 연구수행체계를 소개하고 전반적인 연구 방향성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청년장애인들의 창업 현황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해 현재 서울시 및 정부에서 운용 중인 다양한 창업정책들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제도들이 청년장애인들의 창업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청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청년장애인의 창업 현실과 어려움, 필요한 정책적 도움에 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현행 청년장애인 창업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의 방향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토대로 설문조사 방식의 양적 연구방법과 FGI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장애인 창업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및 정부의 청년장애인 창업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둘째, 청년장애인의 창업 현황을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40명의 청년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청년장애인들의 창

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미 창업을 한 청년장애인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장애인들을 나누어 섭외하여 그들의 사례를 듣고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 분야의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문을 구해 본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02. 선행연구 검토

1_장애인 창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

지금까지 수행된 장애인 창업 관련 연구는 장애인 창업의 성공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분석과 개선방안 모색, 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연구, 그리고 창업사례를 분석하여 장애인 창업의 성공 가능성과 창업 모델을 제시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1) 법·제도 분석과 개선방안 모색, 지원체계마련에 관한 연구

먼저 법·제도 분석과 개선방안 모색, 지원체계마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백수(2007)는 장애인의 고용유지 측면에서 장애인 창업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방안으로 현재 직업재활과정에서 장애인 창업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관련학과 전공 커리큘럼에서 더 발전된 경영전략을 구사하는 경영마인드 습득을 통하여 직업재활사업으로 보완하고 완성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백수·박경순(2008)도 장애인 창업 성공전략의 연구결과로 장애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직업 재활 관련 기관 등 실천현장에서 도입하는 것이 요구되며,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창업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장애인 창업지원 전문가의 책무성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창업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창업 강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김상연·손주환(2016)은 현재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구매의무비율을 추가할 것과 장애인기업 소액수의계약 활성화 방안,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한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촉진 및 장애인기업과 장애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기업 관련 지원사업의 홍보 및 교육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연삼흙(2013)도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구매의무비율 상향과 창업 관련 지원체계 일원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개선, 장애인기업 공제조합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직업교육으로서 장애인 창업교육에 대해 실험한 연구도 있다. 지적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기반 카페 동아리 활동이 진로 결정 효능감 및 직업준비도,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창업교육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의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한상미·김유리, 2019)는 결론을 내었다.

2) 장애 유형별 창업사례와 업종에 관한 연구

장애 유형별 창업사례와 업종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조리 창업 육성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 기반 조직체계 연구를 통해 대학 평생교육원과 학과 간 협업에 의한 공공행정 간의 상생형 거버넌스 체제, 대학캠퍼스 지리적 기반의 조직체계, 발달장애인이 조리 창업의 제반 지식과 기술을 대학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체제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할 방안과 이를 대학 창업보육센터 및 자립화된 사업장의 교육과정체제와 상호 연계시킬 방안이 제시되었다(김영준·김주영, 2018).

한경근(2020)도 발달장애인 가족 기업 창업사례를 통해 당사자 창업을 발달장애인 직업 교육 성과로 보고 있으며, 가족 기업 창업을 발달장애인의 열악한 고용 현실을 극복할 대안으로 인식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시각장애인 창업과 관련하여 이태훈 외(2015)는 안마원 맞춤형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안마원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 안마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종사자의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현직 연수 과정 개선을 주장하였다.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이 자폐성 장애인의 요리기술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활꿈터 거주 자폐성 장애인은 어머니 모형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요리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 및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과 자활꿈터 거주 자폐성 장애인의 요리기술 수행 간에 상호 유의미한 기능적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었다(김영준, 2016). 오동훈·김창완(2017)은 장애 유형별 창업 아이템 선

정과 성공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유형별 아이템을 제시하였는데,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더불어 장애 유형별 창업사례의 제공, 장애특성을 고려한 실전 위주의 창업교육, 창업 상담제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장애인 창업기업의 창업 성공요인 분석에서 장애인 창업은 제조업,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종사 경험 및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 주로 이루어지며, 창업교육 이수 여부, 관련 직업 종사 경험, 창업 소요기간, 장애등급 등의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 자금조달, 아이템 발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정동열 외, 2019).

정은혜(2015)는 장애인 창업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관점이 열려야 하며, 생계형 창업 형태가 되어서는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장애인 창업은 새로운 아이템이 발굴되어 시장에서 경쟁우위 측면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창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장애인 창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장애인의 창업 욕구와 실태, 사례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업 욕구와 실태를 알아보는 한편, 창업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례를 직접 들여보고 지원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_청년장애인 창업지원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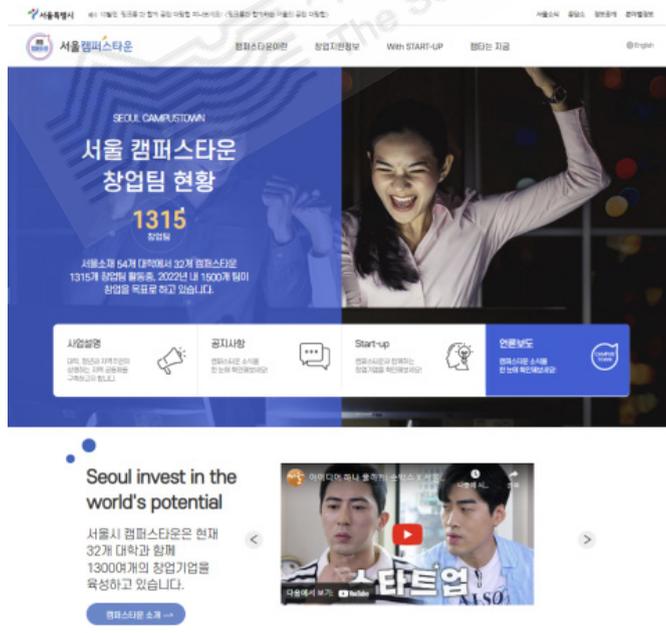
현재 서울시 및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각 정책별 사업공모의 선정 기준을 통해 청년장애인의 창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그간 청년장애인만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은 전무하였으나, 2022년 6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022년 청년장애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일한 청년장애인 대상 창업지원정책이 시행되었다.

1) 서울시의 청년창업지원정책 현황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정책들을 탐색해보았다. 서울청년포털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의 창업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으며, 서울창업허브,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제외하였다.

(1) 서울 캠퍼스타운(<https://campustown.seoul.go.kr>)

서울 캠퍼스타운은 대학과 지역협력을 통한 대학-지역 합동 축제, 특화된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역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 청년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정책이다. 15개의 종합형 캠퍼스타운과 17개의 단위형 캠퍼스타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내 총 32개의 대학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캠퍼스타운의 사업은 종합형과 단위형으로 운영 중이며 제안서 공모를 통한 공개경쟁으로 새로운 유형별 신규사업을 선정한다. 종합형은 최대 20억 원, 단위형은 최대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지만, 사업의 선정 대상 자체가 개인이 아닌 대학이기 때문에 청년창업인에 대한 고려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2-1] 서울 캠퍼스타운 홈페이지

각 학교 내에 있는 캠퍼스타운에서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공고를 내기도 하지만, 창업의 대상이 반드시 청년에 한정된 것은 아닐뿐더러, 최근 게시된 공고들을 살펴본 결과, (2022.09 기준) 청년장애인의 창업지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지원자격이나 우대 사항 등)은 일체 존재하지 않았다.

(2) 청년창업꿈터(<https://youth.startup-plus.kr>)

국내 최초의 쉐어하우스형 창업보육시설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제공입주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하고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업무와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업무 및 주거공간 제거 사업’, 입주기업들이 사업화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심화 단계 멘토링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및 코칭 사업’, 입주기업들 간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지원하는 ‘입주기업 네트워크 사업’이 있다.



[그림 2-2] 청년창업꿈터 홈페이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대표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비 청년창업가 또는 서울시에 사업자등록 주소를 둔 창업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을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어 온전히 청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에서 대면 심사로 이어지는 선정 과정에서 대면 심사 기준은 가점 없이 대표 및 조직 역량, 기술성, 시장 및 성장성의 3개 항목만이 있으며, 서면심사 시에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운영 대학 추천의 경우’ 가산점 2점이 주어진다. 이 외에는 특별한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기에 청년 장애인의 창업 지원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3)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c_biz_center)

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보육 공간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이론교육과 실질적인 조리 실습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준비된 외식 창업가를 육성하는 공간이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주제 선정을 통한 맞춤형 창업교육인 ‘특성화 교육’, 컨설턴트 및 요리전문의 멘토링 시행인 ‘멘토링 프로그램’, 지역연계 점포체험, IR데모데이, 맛 테스트팅 개최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림 2-3]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참가자모집 포스터

지원대상은 만 19~39세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서울시 청년으로 청년창업꿈터와 마찬가지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2단계로 진행되며, 가점 항목으로는 '정부·지자체 외식창업 관련 과정 수료자'와 '정부·지자체 주관 요리경진대회 입상자'에 각각 1점씩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중 서울시 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무수히 많지만, 막상 창업을 꿈꾸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청년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 등 청년장애인의 창업을 독려할 수 있는 아이템도 전무하여 서울시 내 기존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만으로 청년 장애인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정부의 장애인기업지원정책 현황

(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정보, 기술, 교육, 훈련, 연수, 상담, 연구 조사 및 보증 추천 등의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의 공고문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창업보육실

모집대상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통해 사업화 가능한 업종이다. 입주심사 시 우대 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기초, 특화, 역량강화, 재기교육), MBA 교육, CEO 교육 수료자', '기술 창업 특성에 부합하는 창업아이템', '창업아이템의 수출 및 고용창출 잠재력 보유 여부'가 있다.

□ 모집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공고일 기준)의 장애인기업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통해 사업화 가능한 업종(IT관련업, 제조업, 디자인업, 서비스업 등)

〈입주심사 시 우대(가점)사항〉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기초, 특화, 역량강화, 재기교육), MBA 교육, CEO 교육 수료자						
교육명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MBA교육	CEO교육
	기초교육	특화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교육		
인정기간*	1년	2년	1년	1년	2년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부터 시행된 각 교육별 수료증 인정기간은 교육수료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적용하며, 2018년 신규 교육이수자의 경우 면접심사일의 전일까지 교육수료증 제출 시 인정함. * 2011~2014년까지 시행된 각 교육별 수료증은 별도의 인정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우대함. 						
○ 기술창업 특성에 부합하는 창업아이템						
제목	세부내용					
기술기반 제조·서비스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석유,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분야의 제조·서비스기술					
지식서비스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분야의 S/W(시스템) 및 설계기술					
○ 창업아이템의 수출 및 고용창출 잠재력 보유여부						

[그림 2-4] 창업보육실 모집대상 및 우대사항

② 청년장애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청년 간의 네트워킹 형성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예비창업자인 청년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현존하는 유일한 청년장애인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비정기적인 지원사업들이 있었으나, 청년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은 찾을 수 없었다. 창업보육실의 경우 인큐베이팅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임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또한, 청년장애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청년장애인 창업자만을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지만, 2022년에 최초로 실행한 신규사업인 데다 일일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일회성 행사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 운영 일정

- (1회차) 2022. 07. 21. (목), 10:00~18:00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벤션센터빌딩 크리에이티브랙토리, 2층 회의실
- (2회차) 2022. 08. 24. (수), 10:00~18:00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 지벨리비즈플라자, 11층 다목적 강의실

□ 행사 프로그램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등록	09:30~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셉션 운영 - 인원 확인, 접수 등록 등 	
개회	10:00~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고 및 오리엔테이션 	사회자
강의(1)	10:3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청년 CEO 창업스토리 특강 	특강 강사 (장애인 청년 CEO)
중식	12: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식 	• 행사장 내 제공
강의(2)	13: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템 및 사업계획 수립 	진행강사 외 전문멘토
실습	14: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시뮬레이션 	진행강사 외 전문멘토
강의/실습	17: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뮬레이션 성과 발표 및 피드백 	진행강사 외 전문멘토
폐회	18:00~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가 	

* 상기 일정은 업체 운영 및 협의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그림 2-5] '청년장애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정 및 행사 프로그램

03. 청년장애인 창업수요와 사례조사

1_설문을 통한 청년장애인 창업 수요조사

1) 조사 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내 청년장애인' 40명이다. 조사대상자들에게는 본 조사의 내용과 연구의 의의, 비밀보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설문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2) 측정 도구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만 연령,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유형(15개 유형), 현재 직업(전문직(과학, 보건, 복지, 교육, 법률 등 전문가), 관리직(공공 및 기업, 행정 및 경영 관리), 사무직(경영, 회계, 보험, 금융 등 사무 종사), 서비스직(음식, 운송, 여가, 의료보조 등), 생산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제조, 청소, 경비, 노점 등 단순 노무), 자영업, 학생, 직업 없음, 기타), 주관적 경제 상태(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로 조사하였다.

둘째, 설문은 크게 '청년장애인의 창업 현황에 관한 질문', '서울시·정부의 청년장애인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질문', '청년장애인의 창업지원 방향에 관한 질문'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작성된 19개의 객관식 설문 문항과 1개의 서술형 문항, 총 20개의 설문 문항들은 사회복지학 박사,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 후 사용되었다.

(3) 자료수집 방법

조사 대상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청년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협조를 구했으며, ‘청년포럼’ 참가자들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선정해 응답을 요청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22년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는 1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응답 사례로 제공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총 40명의 설문이 수집되었으나 응답에 결측이 있는 2명을 제외한 총 3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23명(60.5%), 여성이 15명(39.5%)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28명(73.7%)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10명(26.3%)보다 훨씬 많았다.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가 16명(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체장애’가 12명(27.9%), ‘청각장애’가 6명(1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직업으로는 ‘학생’이 29명(7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직(과학, 보건, 복지, 교육, 법률 등 전문가)’ 4명(10.5%) 순이었다. 주관적 경제 상태는 ‘보통이다’가 과반수인 23명(60.5%)으로 나타났으며, ‘나쁜 편이다’가 9명(23.7%)으로 이어졌다.

[표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항	구분	빈도	비율	합계
성별	남성	23	60.5	38 (100.0)
	여성	15	39.5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8	73.7	38 (100.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	26.3	
장애유형 (복수응답)	지체장애	12	27.9	43 (100.0)
	뇌병변장애	16	37.2	
	시각장애	4	9.3	
	청각장애	6	14.0	
	언어장애	0	0.0	
	인면장애	0	0.0	
	신장장애	0	0.0	
	심장장애	0	0.0	
	간장애	0	0.0	
	호흡기장애	0	0.0	
	장루·요루장애	0	0.0	
	뇌전증장애	0	0.0	
	지적장애	0	0.0	
	자폐성장애	1	2.3	
	정신장애	2	4.7	
	기타	2	4.7	
현재 직업	전문직(과학, 보건, 복지, 교육, 법률 등 전문가)	4	10.5	38 (100.0)
	관리직(공공 및 기업, 행정 및 경영 관리)	1	2.6	
	사무직(경영, 회계, 보험, 금융 등 사무 종사)	2	5.3	
	서비스직(음식, 운송, 여가, 의료보조 등)	0	0.0	
	생산직	0	0.0	
	판매직	0	0.0	
	단순노무직(제조, 청소, 경비, 노점 등 단순 노무)	0	0.0	
	자영업	0	0.0	
	학생	29	76.3	
직업 없음	2	5.3		
주관적 경제 상태	매우 나쁘다	0	0.0	38 (100.0)
	나쁜 편이다	9	23.7	
	보통이다	23	60.5	
	좋은 편이다	6	15.8	
	매우 좋다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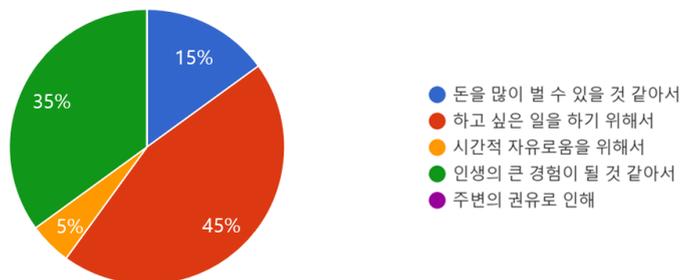
(2) 청년장애인의 창업 현황에 관한 질문

청년장애인들의 창업에 대한 의지와 준비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2]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창업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이 20명(52.6%),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이 18명(47.4%)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절반인 19명(50.0%)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11명(28.9%)으로 나타났다.

[표 3-2] 청년장애인들의 창업에 대한 의지와 준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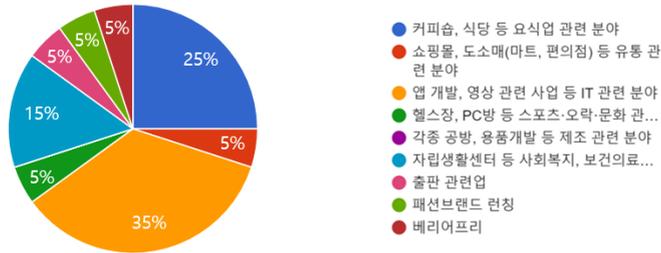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귀하께서는 창업을 하기를 희망하십니까?	3 (7.9)	15 (39.5)	6 (15.8)	9 (23.7)	5 (13.2)	38 (100.0)
2. 귀하께서는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19 (50.0)	11 (28.9)	7 (18.4)	0 (0.0)	1 (2.6)	38 (100.0)

창업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네 가지 문항의 분석 결과는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와 같다. 먼저, 창업을 희망하게 된 동기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9명(45%)으로 절반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생의 큰 경험이 될 것 같아서’가 7명(35%),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가 3명(15%)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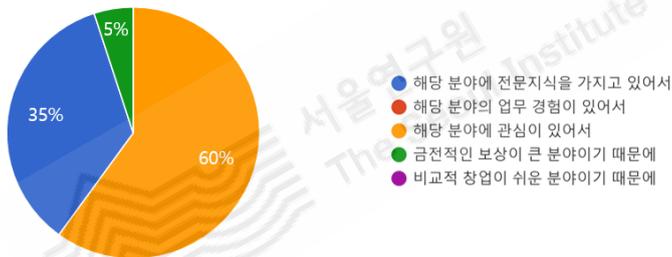
[그림 3-1] 창업을 희망하게 된 동기

어떤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지는 '앱 개발, 영상 관련 사업 등 IT 관련 분야'가 7명(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커피숍, 식당 등 요식업 관련 분야'가 5명(25%), '자립생활센터 등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분야'가 3명(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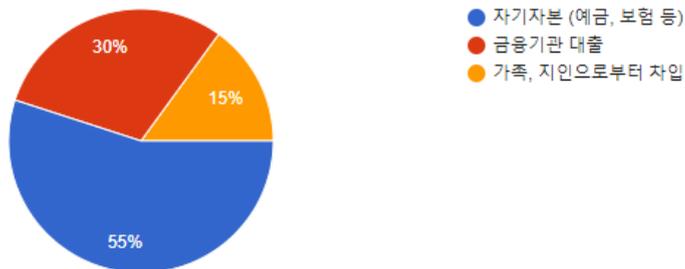
[그림 3-2] 창업 희망 업종

업종을 선택한 이유로는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가 12명(60%)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7명(35%)으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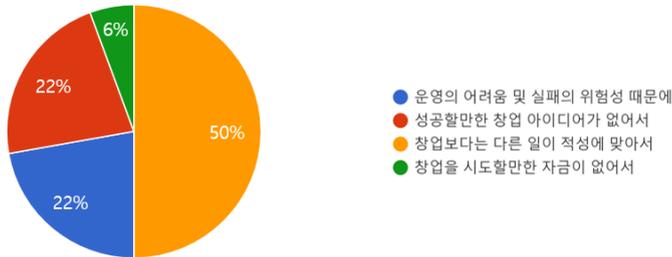
[그림 3-3] 업종을 선택한 이유

창업 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자기자본'이 11명(5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금융기관 대출'이 6명(30%)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창업 시 필요자금 마련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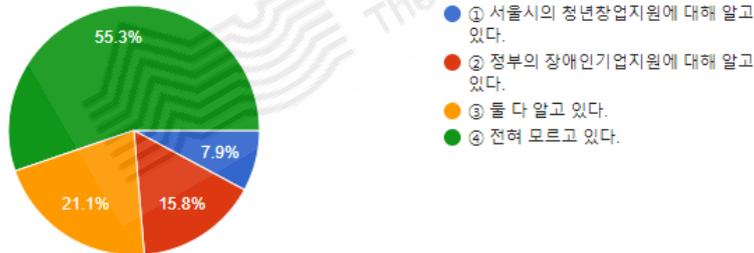
창업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항의 분석 결과는 [그림 3-5]와 같다. 창업을 희망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창업보다는 다른 일이 적성에 맞아서'가 9명(50.0%)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림 3-5] 창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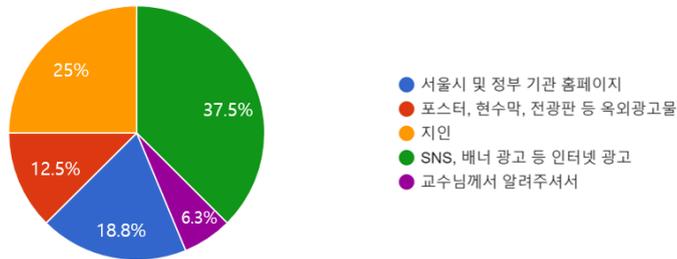
(3) 서울시·정부의 청년장애인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질문

서울시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장애인 관련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21명(55.3%)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림 3-6] 청년장애인 관련 창업지원정책의 인지 여부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청년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에 관한 응답으로는 'SNS, 배너 광고 등 인터넷 광고'가 6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인' 4명(25%), '서울시 및 정부 기관 홈페이지' 3명(18.8%) 순으로 많았다.



[그림 3-기] 청년장애인 창업지원정책 정보의 출처

(4) 청년장애인의 창업지원 방향에 관한 질문

서울시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표 3-3]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교육’, ‘경진대회’, ‘창업 멘토링’은 각각 5명(13.2%), ‘창업 관련 워크숍’은 2명(5.3%), ‘캠프’, ‘창업동아리 지원’은 각각 1명(2.6%)만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표 3-3] 서울시 및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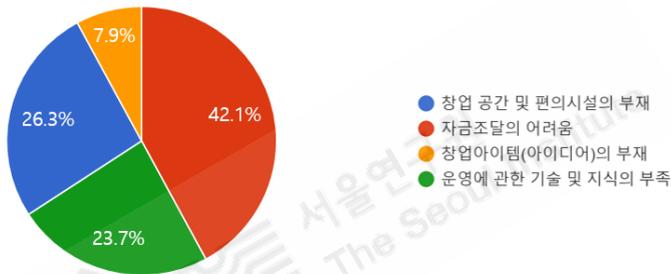
문항	있다	없다	합계
캠프	1 (2.6)	37 (97.4)	38 (100.0)
창업 관련 워크숍	2 (5.3)	36 (94.7)	38 (100.0)
창업동아리 지원	1 (2.6)	37 (97.4)	38 (100.0)
창업 교육	5 (13.2)	33 (86.8)	38 (100.0)
경진대회	5 (13.2)	33 (86.8)	38 (100.0)
창업 멘토링	5 (13.2)	33 (86.8)	38 (100.0)

청년장애인이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는 ‘운영자금 마련’이라는 응답이 11명(28.9%), ‘창업아이템(아이디어)’, ‘이동 및 편의에 관한 사회시설 및 공간’, ‘운영기술 및 운영지식’이라는 응답들이 각각 9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3-8] 청년장애인 창업 준비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청년장애인의 창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16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 공간 및 편의시설의 부재’가 10명(26.3%), 운영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의 부족’이 9명(23.7%)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청년장애인의 창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청년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응답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가 23명(60.5%)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표 3-4] 청년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3. 청년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0.0)	1 (2.6)	2 (5.3)	12 (31.6)	23 (60.5)	38 (100.0)

가장 우선시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으로는 청년장애인 창업자금 지원이 13명(3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장애인 창업 관련 교육, 컨설팅'이 10명(26.3%), '세금, 법률, 회계, 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등 경영지원'이 9명(2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0] 청년장애인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

청년장애인 창업에 대해 서울시에 바라는 프로그램이나 정책, 기타 의견으로는 38명 중 10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서울시에 바라는 프로그램이나 정책, 기타 의견

분류	응답 내용
프로그램	교육 활동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창업교육자체가 정부 혹은 수도권자체 중심인 경우가 많아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책	창업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청년장애인들의 다양한 사례를 창업 희망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 습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함
	체계적인 교육과 접근성 좋은 공간 및 시설
	단순히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보다는 청년이 가진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기반으로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행정적인 절차 및 사업 확대 방안을 위주로 진행하면 성공적인 창업의 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아이디어가 있지만 공간과 시설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창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업을 위한 자금이나 교육 등등은 사실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 창업을 한다면 필수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는 시설과 공간의 확보가 우선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이 받는 창업지원의 정도를 똑같이 받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더 많은 청년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설문 조사 주요 결과

주요 결과, 조사대상자는 남성 23명(60.5%), 여성 15명(39.5%)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가,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참여자가 많았다. 참여자의 현재 직업으로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타인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주관적 경제 상태는 '보통'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청년장애인의 창업 현황에 관한 분석 결과,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음에도 '창업을 희망하는가'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20명(52.6%)에 불과하였으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30명(78.9%)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장애인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창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들의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을 희망하게 된 동기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9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종으로는 '앱 개발, 영상 관련 사업 등 IT 관련 분야'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업종 선택 계기로는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가 12명(60%)으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창업 시 필요한 자금으로는 '자기자본(예금, 보험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창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의 창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창업보다는 다른 일이 적성에 맞아서'가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나머지 절반은 '성공할 만한 창업 아이디어가 없어서', '운영의 어려움 및 실패의 위험성 때문에', '창업을 시도할만한 자금이 없어서'라는 응답을 주었다.

서울시 및 정부의 청년장애인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서울시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장애인 관련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21명(55.3%)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청년장애인과 관련된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모르는 청년장애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의 경우 창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SNS, 배너 광고 등 인터넷 광고', '지인'을 통해 얻었다는 응답이 각각 6명(37.5%), 4명(25%)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서울시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설문에는 다섯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각 문항별 86.8~97.4%의 응답자들이 '없다'고 밝혀 청년장애인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관한 의문점을 남겼다.

청년장애인의 창업지원 방향에 관한 설문 분석 결과, 우리 사회에서 청년장애인이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영자금 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장애인의 창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또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장애인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대한 응답도 '청년장애인 창업자금 지원'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장애인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창업에 있어 가장 큰 방해요인이 '자금 문제'임을 보여준다.

청년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처럼 청년장애인 대상자들의 창업지원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강하기 때문에 청년장애인 창업지원 정책의 개발은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추진체계 마련 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2_FGI를 통한 청년장애인 창업 사례조사

1) FGI 개요

(1) FGI 구성

청년장애인의 창업 현실과 어려움, 필요한 정책적 도움에 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FGI는 창업에 대한 사전 경험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창업 진행 그룹'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 준비 그룹'으로 분리해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섭외는 장애인단체와 장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해당 장애인을 추천받아 섭외하였으며 총 4명의 장애인이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2:1 형식으로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2022년 6월 27일, 7월 22일에 각각 진행하였다. 인터뷰에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들이 참여하였고 사전에 안내해준 질문을 기본으로 하여 상황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표 3-6] FGI 참여자 개요

구분	Tag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특성
그룹1 창업 진행 그룹	A	남	청각장애	심한 장애	사업체(사회적기업) 운영 중
	B	남	지체장애	심한 장애	사업체(IT기업) 운영 중
그룹2 창업 준비 그룹	C	남	뇌병변장애	심한 장애	창업(사회적기업) 준비 중
	D	남	지체장애	심한 장애	창업(요식업) 준비 중

인터뷰 질문은 반구조화 된 방식으로 주로 창업을 희망하게 된 계기, 창업 준비 상황, 창업의 어려움 등 청년장애인의 창업 현실에 관한 것과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중 유의미한 응답만을 선택하여 인용하였다.

2) FGI 결과 분석 및 시사점

(1) 창업의 이유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알기 위해 창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창업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각각 달랐지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두 가지의 큰 틀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중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으로서의 직업적 한계를 깨닫고 이를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Q. 창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제가 특수교육 전공을 해서 공립학교 가려고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임용고시 준비하려면 인터넷 강의도 듣고 해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자막도 안 나오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 하다 보니 사회적기업을 알게 되었고 (...)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한 게 지금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B: 창업은 말 그대로 영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초점입니다.

C: 제가 자립센터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 자립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는 센터가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론 문제를 문화나 스포츠 쪽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면 어떻게 될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이끌어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D: 장애인들이 취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 창업을 해서 본인이 사업비를 받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본적인 수익을 낸다는 그런 전제하에 창업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2) 현실적인 창업의 어려움

현실적인 창업의 어려움은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보다는 비장애인과 의견 차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창업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장애'를 꼽았다. 이들이 말한 '장애'는 여러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첫째로, 장애인들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과정이나 각종 절차에 있어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로는, 사회적인 불리가 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창업을 결심하고 난 뒤, 이들이 마주하는 사회적인 시선은 여전히 너무나도 차갑다. 장애인의 창업에 대한 무지와 부정적인 인식들로 인해 이들의 능력까지도 낮게 평가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사회적 불리로는, 비장애인에 비해 창업 실패에 따르는 금전적인 리스크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장애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하이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청년장애인들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이다.

- A: 컨설팅하거나 교육할 때 있잖아요. 교육할 때 청각장애 접근성이 너무 어려웠던 거죠. (...) 요즘은 청각장애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해요. 항상 많이 들던 말이 선정은 됐는데 교육받는 게 너무 어렵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 걸 받기가 어려우니까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사업 성과가 지지부진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 B: 창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간을 방문하는 그런 것들의 접근성 문제, 두 개예요. 근데 비장애인들은 그 두 개가 고려 사항이 아닌 거죠. (...) 예를 들어 어떤 지원사업이다. 근데 거기 리더가 장애인인데 이런 불편함이 있다. 그럼 바로 이 사람은 이런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런 인식이 기본에 깔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왜 창업을 하셨어요?' 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 C: 장애인이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떨어져요.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장애인이 창업을 한다고?' 이런 반응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어떻게 창업을 해요?', '뭘 해요?' 보자마자 그냥 듣지도 않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 D: 실패를 하면 기본 대출금 갚아야 하는데 이자는 동일하게 늘어나고 기간의 압박은 들어올 테고, 비장애인같은 경우는 솔직히 취업을 하든 뭘 하든 막노동을 해서라도 갚을 수 있는데 장애인은 취업하기도 어렵고, 급여가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생활비 쓰기에도 버거운데 원금을 갚는다? 쉽지 않거든요.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도전조차도 힘든 거예요.

(3) 현행 창업지원정책의 경험

청년장애인만을 위한 별다른 창업지원정책이 없는 현재, 현행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경험을 묻자 이들은 정부의 청년창업지원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았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주를 이뤘다. 정부와 기업체의 연계로 진행되는 창업컨설팅을 받아보았다는 인터뷰 대상자 D는

자신이 경험한 창업컨설팅에 대해 이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이익 사업일 뿐 창업을 준비하려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모든 매뉴얼들이 비장애인들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수한 부담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던 인터뷰 대상자 B는 현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 센터가 제대로 된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모 과정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까다롭게 선정하다 보니 창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청년장애인 들보다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노년층의 장애인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도로 여러 창업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청년장애인이 창업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D: 창업컨설팅 사업을 하는 회사들, 사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참여를 해봤었는데, (...) 모든 부담을 오롯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안고 가야 되는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보상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시장이 좀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너무 작고 미비해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불만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B: 장애인OOOO지원센터는 주로 인큐베이팅을 해요. (...) 공모를 받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채택이 되면 임대를 할 수 있어요. (...) 문제는 앞부분의 심사를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 나이 70~80 드신 어르신들이 나중에 장애 등급 받아서 돌다 돌다가 사무실 공간 싸다고 하니까 들어오는 경우.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맨날 썬화차 마시고 계시고 부동산, 복덕방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 입주하신 대표님 중 한 분이 돌침대인가 뭐가 사업을 하시는 70대 어르신이었거든요. 그 공간 하자마자 그 사무실에 침대를 몇 개를 갖다 놔는지 몰라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공간이지 창고처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낭비가 되는 거죠.

(4) 창업지원정책의 제안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청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긍정을 표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창업을 진행하고, 준비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 정책적 의견을 제안해주었다. 실제 겪었던 경험들이 바탕이 된 만큼 접근성 문제 해결 방안, 멘토의 필요성, 창업 아이디어뱅크 등 향후 청년장애인들이 창업을 할 때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나눌 수 있었다.

A: 장애인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면 우선은 각 장애 영역별로 교육이라던가 그런 접근성을 기본으로 좀 깔아주고 농인이 선정되어서 들어오면 모든 프로그램은 다 수화통역을 배정하거나 또는 저 같은 사람이 선정되면 문자 통역을 처음부터 다 배정을 해준다거나 그런 지원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B: 창업을 할 때는 제반 사항들을 사회에 나와서 시행착오나 귀동냥을 들어서 배워야 되는 건데 (...) 본인이 직접 몸으로 부딪치지 않으면 모르는 게 100%예요. (...) 누가 이걸 서포트 해줘야 되냐, 멘토가 있어야 돼요. 청년장애인 창업만큼은 적어도 관련된 경험이 있는 멘토가 아주 밀접하게 서포트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A: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서 저작권은 센터가 가지고 있다가 (...) 청년기업가를 발굴해서 (...) 청년이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거고 어떻게 손익 분기점을 맞출 거고 어떤 본인의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아이템을 연결시켜줘서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D: 창업지원을 받든 컨설팅을 받든 서류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장애 접근성이 떨어져요. 시각장애인들이 접자가 안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불편하다 이런 건 개선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저는 우선적으로 서류 자체가 워낙 많고 복잡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간소화하고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4. 청년장애인 창업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지금까지 청년장애인의 창업 실태와 현황, 욕구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정책 탐색, 설문을 통한 청년장애인 창업 실태조사, FGI를 통한 청년장애인의 구체적인 창업욕구 파악 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사방법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청년장애인들의 창업에 대한 욕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장애인의 창업 활성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기존 창업지원정책의 보완’, ‘신규 청년장애인 창업지원정책 제언’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1_기존 창업지원정책의 보완

청년장애인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기존의 창업지원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업지원 정책들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로, 기존의 정책들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장애인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 장애접근성 강화

접근권이란 교육, 의료, 직업, 문화, 오락, 그리고 복지 등의 활용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는 일상생활에 대한 권리(송순영, 2011)다.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핵심적인 권리로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권리개념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들을 실제적이고도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창안된 개념(서정희, 2010)이기도 하다. 즉, 모든 장애인들은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선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창업교육’, ‘경진대회’, ‘창업 멘토링’은 각각 5명(13.2%), ‘창업 관련 워크숍’은 2명(5.3%), ‘캠프’, ‘창업동아리 지원’은 각각 1명(2.6%)만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많은 청년장애인 당사자들이 창업에 관심이 있음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나아가 FGI에 참가했던 당사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장애인의 입장에서 접근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창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과 관련된 각종 제반 사항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창업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지기에 창업의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장애인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할 때,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자원 체계를 마련하게끔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원은 예산의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위한 잉여 예산을 남기도록 한다면 장애인들이 교육 시 접근성을 보장받기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2) 장애친화적 매뉴얼 생성

창업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매뉴얼이 있어야 하며,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창업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의도치 않게 접근성 문제 등, 장애인의 창업 시 따라오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고려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 청년장애인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음을 공적으로 각인 시킨다면 창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장애인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하게 된다면 이는 향후 다른 청년장애인들에게도 창업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

2_신규 청년장애인 창업지원정책 제언

청년장애인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기존의 창업지원 정책과는 별개로 새롭게 청년장애인들의 창업을 도울 수 있는 방식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아이디어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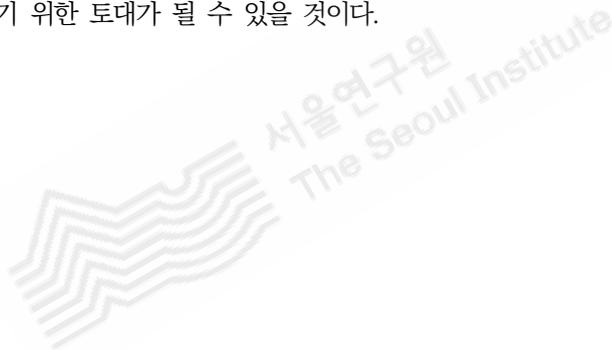
장애정도, 장애유형, 아이템 선정방식은 장애인 창업자의 사업성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금진(2008)의 연구결과나, 장애유형별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의 창업아이템을 재분류하여 확인한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자신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창업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오동훈(2016)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창업에 있어 창업 아이템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과 맞지 않는 아이템이라면 성공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장애인 창업의 경우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할 경우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비장애인기업보다 높다(김백수, 박경순, 2008). 따라서 청년장애인의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비장애인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아이디어뱅크는 창업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공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줌으로써 청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디어뱅크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장애인창업지원센터(가칭)의 존재가 필요하다. 센터 측에서 창업아이디어공모전을 열어 장애인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저작권은 센터가 가지고 있다가 향후 청년장애인기업가를 발굴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아이템을 연결시켜주고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창업 아이템 자체가 장애유형이나 창업의 시기, 자금의 크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우니 이러한 아이템들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역량 있는 청년장애인기업가에게 연결해주는 허브의 기능을 센터가 한다면 창업의 실패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 전용 컨설팅 자원(멘토링)

여러 연구를 통해 멘토링의 가치는 이미 증명되어 있으며, 국내의 많은 기관들과 대학에서도 창업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창업멘토링 제도의 도움에만 의존하기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각각 창업을 하면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결코 똑같지 않다. 물론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비장애인들이 당연히 여기고 무심코 지나가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렇기에 정확히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같은 입장에서 같은 어려움을 미리 경험해 본 사람보다 좋은 스승은 없기 때문이다.

위의 네 가지 제안을 토대로 지원방안을 검토할 때,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기관은 단기 보완책이 아닌 장기적 일자리 창출방안으로서 지원을 검토해야 하며(이원희, 2010), 개별적이기보다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각 정책들은 청년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범준·배병윤·송용욱, 2022,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발달장애학생 부모 창업 요인에 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23(2): 68~93.
- 김백수, 2007,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본 장애인 창업지원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연구- 장애인 창업지원 과정의 전달체계와 지도원리에 따른 미래가치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7): 5~48.
- 김백수·박경순, 2008,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실천현장에서의 성공전략연구”, 『재활복지』, 12(3), 251~271.
- 김상연·송주환, 2016,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창업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1(2): 23~47.
- 김영준, 2016,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이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장애인의 요리기술에 미치는 효과”, 『장애인복지연구』, 7(2): 71~108.
- 김영준·김주영, 2018, “발달장애인의 조리창업 육성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 기반 통합체계 구성방안”, 『통합교육과정연구』, 12(1): 23~58.
- 김태진·주희진·이효주·허재준, 20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p31.
- 서정희, 2010, “장애인의 접근권-장애인권리협약과 비준 당사국의 이행보고서 지침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연구』 26 (4 : 49~75).
- 송순영, 2011, “장애인 소비자권리로서 장애인 접근권 현황 및 과제”, 『월간 소비자정책동향』 28:16~32.
- 안주협, 2002,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인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연삼흠, 2013,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활용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속가능연구』, 4(1): 129~147.
- 오동훈, 2016, “장애인의 창업아이템 선정이 성공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동훈·김창완, 2017, “장애유형별 창업아이템 선정과 창업성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2(3): 1~26.

이금진, 2008, “장애인의 창업실태와 창업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영업장소 전대 창업자를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8): 101~129.

이원희, 2010, “장애인의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준우, 2006, “신규 장애인의 자영창업 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재활복지』, 10(3): 107~132.

이태훈·홍윤희·장정은, 2015, “안마원 창업 및 경영 지원 실태와 요구 조사”, 『장애와고용』, 25(3): 51~72.

정동열·고은영·신희향·전승환, 2019, “장애인 창업기업의 창업 성공요인”, 『한국창업학회』, 14(6): 114~137.

정은혜, 2015, “장애인 창업의 마케팅전략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유통과학회』, 13(2): 105~112.

한경근, 2020, “발달장애인 가족 기업 창업사례가 시사하는 특수학교 전공과 진로·직업 교육의 방향성”, 『장애와고용』, 30(3): 187~20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상미·김유리, 2019, “창업교육 기반 카페 동아리 활동이 지적장애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직업준비도와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친 영향”, 『특수교육』, 18(4): 81~106.

<https://youth.seoul.go.kr> (청년 몽땅 정보통)

<https://campustown.seoul.go.kr/site/main/home> (서울캠퍼스타운)

<https://youth.startup-plus.kr> (청년창업꿈터)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c_biz_center (서울시 청년국 비즈니스센터)

<https://www.debc.or.kr/>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조태홍, 2020.09.11., “장애인의 노동·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콘퍼런스의 의의”,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42>

부록

설문지

서울시 청년장애인 창업 관련 인식 조사

설문조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의 목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장애인(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창업 관련 인식을 조사하고, 청년장애인의 창업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청년장애인들의 창업 현황과 어려움, 향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사의 응답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연구책임: 전하영 (국제장애인노동인권연맹 팀장)
- ▶ 공동연구: 조태홍 (국제장애인노동인권연맹 본부장)
임상욱 (전)서울연구원
- ▶ 조사기간: 2022. 6. 16~ 2022. 7. 16
- ▶ 이메일: jhayoung1002@naver.com

<p><개인정보 수집·이용></p> <p>○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연구목적</p> <p>○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별, 연령, 장애정도, 장애유형 등 개인 신원</p>
<p>▷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p> <p>▪ 동의합니다. (서명: _____)</p>
<p>▷ 연락처 :</p> <p>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설문지 회수 후,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10,000원권)</p>

I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_____ ② 여성 _____
-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장애정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_____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_____
- 장애유형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 지체장애 _____	② 뇌병변장애 _____	③ 시각장애 _____	④ 청각장애 _____
⑤ 언어장애 _____	⑥ 안면장애 _____	⑦ 신장장애 _____	⑧ 심장장애 _____
⑨ 간장애 _____	⑩ 호흡기장애 _____	⑪ 장루·요루장애 _____	⑫ 뇌전증장애 _____
⑬ 지적장애 _____	⑭ 자폐성장애 _____	⑮ 정신장애 _____	⑯ 기타 _____

5.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직(과학, 보건 복지, 교육, 법률 등 전문가) _____ ② 관리직(공공 및 기업, 행정 및 경영 관리) _____
 ③ 사무직(경영, 회계, 보험, 금융 등 사무 종사) _____ ④ 서비스직(음식, 운송, 여가, 의료보조 등) _____
 ⑤ 생산직 _____ ⑥ 판매직 _____
 ⑦ 단순노무직(제조, 청소, 경비, 노점 등 단순 노무) _____ ⑧ 자영업 _____
 ⑨ 학생 _____ ⑩ 직업 없음 _____
 ⑪ 기타() _____

6. 귀하의 주관적 경제 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II

청년장애인의 창업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창업을 하기를 희망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1에서 ③,④,⑤를 선택하셨다면 문항 1-1으로, 문항 1에서 ①,②를 선택하셨다면 문항 1-5로 가십시오.

(문항 1-1 ~ 문항 1-4 는 문항 1에서 ③, ④ ⑤ 중 하나로 답한 경우만 응답해주세요.)

1-1. 창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_____ ②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_____
 ③ 시간적 자유로움을 위해서 _____ ④ 인생의 큰 경험이 될 것 같아서 _____
 ⑤ 주변의 권유로 인해 _____ ⑥ 기타() _____

1-2. 어떤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십니까?

- ① 커피숍, 식당 등 요식업 관련 분야 _____
- ② 쇼핑몰, 도소매(마트, 편의점) 등 유통 관련 분야 _____
- ③ 앱 개발, 영상 관련 사업 등 IT 관련 분야 _____
- ④ 헬스장, PC방 등 스포츠·오락 관련 분야 _____
- ⑤ 각종 공방, 용품개발 등 제조 관련 분야 _____
- ⑥ 자립생활센터 등 사회복지, 보건 의료 관련 분야 _____
- ⑦ 기타 (_____) _____

1-3. 위 업종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_____
- ② 해당 분야의 업무 경험이 있어서 _____
- ③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_____
- ④ 금전적인 보상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_____
- ⑤ 비교적 창업이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_____
- ⑥ 기타(_____) _____

1-4. 창업 시 필요한 자금은 주로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 ① 자기자본 (예금, 보험 등) _____
- ② 금융기관 대출 _____
- ③ 가족, 지인으로부터 차입 _____
- ④ 기타 창업자본 마련 (_____) _____

(문항 1-5 는 문항 1에서 ①, ②로 답한 경우만 응답해주세요.)

1-5. 창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운영의 어려움 및 실패의 위험성 때문에 _____
- ② 성공할만한 창업 아이디어가 없어서 _____
- ③ 창업보다는 다른 일이 적성에 맞아서 _____
- ④ 창업을 시도할만한 자금이 없어서 _____
- ⑤ 기타 (_____) _____

2. 귀하께서는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Ⅲ 현행 청년장애인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울시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장애인 관련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① 서울시의 청년창업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 _____
- ② 정부의 장애인기업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 _____
- ③ 둘 다 알고 있다. _____
- ④ 전혀 모르고 있다. _____

문항 1에서 ①,②,③을 선택하였다면 문항 1-1으로, 문항 1에서 ④를 선택하였다면 문항 2로 가십시오.

(문항 1-1 은 문항 1 에서 ①,②,③으로 답한 경우만 응답해주세요.)

1-1. 청년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 ① 서울시 및 정부 기관 홈페이지 _____
- ② 포스터, 현수막 등 광고물 _____
- ③ 지인 _____
- ④ SNS _____
- ⑤ 기타 () _____

2. 서울시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참여 여부	
캠프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창업 관련 워크숍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창업동아리 지원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창업 교육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경진대회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창업멘토링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II	서울시 청년장애인의 창업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	----------------------------------

1. 우리 사회에서 청년장애인이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동 및 편의에 관한 사회시설 및 공간 _____ ② 운영자금 마련 _____
 ③ 창업아이템 (아이디어) _____ ④ 운영기술 및 운영지식 _____
 ⑤ 기타() _____

2. 우리 사회에서 청년장애인의 창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창업 공간 및 편의시설의 부재 _____ ② 자금조달의 어려움 _____
 ③ 창업아이템(아이디어)의 부재 _____ ④ 운영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의 부족 _____
 ⑤ 기타() _____

3. 청년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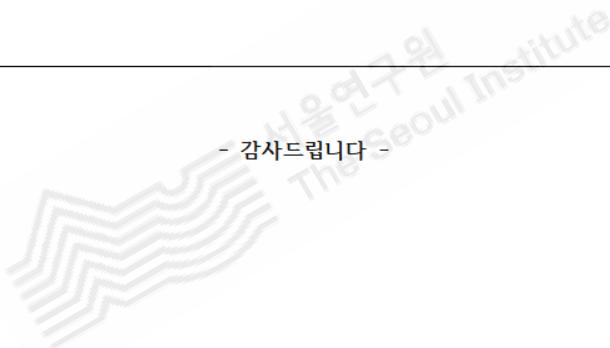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청년장애인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장애인 맞춤 창업 공간 및 시설 지원 _____
- ② 청년장애인 창업자금 지원 _____
- ③ 청년장애인 창업 관련 교육, 컨설팅 _____
- ④ 세금, 법률, 회계, 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등 경영지원 _____
- ⑤ 기타 () _____

5. 청년장애인 창업에 대해 서울시에 바라는 프로그램이나 정책,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감사드립니다 -



작은연구 좋은서울 22-10

서울시 청년장애인의 창업 수요와
지원정책 개선 방안

발행인 박형수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